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성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IOWA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일단 Iowa 자체가 규모가 큰 대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캠퍼스 규모 자체가 크고 Iowa 자체가 캠퍼스 타운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 안에서 어딜가나 학교 물품을 파는걸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헬스장도 굉장히 좋고 수영장도 있어서 시간만 맞추어 가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스스케이트장도 있어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가능합니다. 그밖에 학교에서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즐길거리가 많이 없는게 사실 이지만, 그만큼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하니 딱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치안도 캠퍼스 내에 경찰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safe ride라고 해서 늦은 시간에 캠퍼스 안에서 택시처럼 이용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끊겼다 이럴 때 safe ride에 전화하면 픽업가능 합니다.</p>
2016-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저는 가서 경험해 볼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과 비추천만 저의 소견대로 적겠습니다.</p> <p>1) Dane 140 (jazz)</p> <p>책보는 과목만 신청하면 힘들 것 같아서 신청한 과목인데 결론은 몸 쓰는거 좋아하는 분께는 추천하지만 그밖에는 비추천 입니다. 지루하진 않지만 딱히 도움이 되는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수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힘들고 수업 시간 동안 거의 교수님 지도 아래 춤 연습이 대부분 입니다. 춤에 관심이 많은 분께는 좋은 수업일 수</p>

	<p>있지만 그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p> <p>2) International studies 235</p> <p>첫학기가 이 수업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과제가 정말 많아요. 수업 자체가 국제사회 분쟁, 문제점 등에 대해 책이나 자료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교수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예습한 것을 바탕으로 진도를 나가는 식입니다. 때때로는 예습한걸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랑 토론 합니다. 수업 주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 당연히 공부할거리들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걸 한국어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제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건 교수님이 좋은 분이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가지고 가면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p>
<p>2017-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 Advertising230</p> <p>평소에 광고 수업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지루해서 나중에는 공부하는걸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한시간씩 수업했는데 정말 1시간 동안 교수님이 계속 설명만하세요. 대강의이고 퀴즈가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퀴즈도 있고 수업시간에 치는 퀴즈도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은 출석체크를 따로 하지 않고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퀴즈를 치는 날을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지 않은 날에도 퀴즈를 칠 수 있어요. 이걸로 출석체크 하는거예요. 만약에 교수님이 출석체크 안한다고 수업에 안나갔다. 근데 그날 퀴즈가 있었다. 이러면 출석점수, 퀴즈점수가 깎이겠죠. 수업 자체는 나중에 성적 받기 그닥 어렵지 않아요. 저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퀴즈도 많고 해서 좀 성가신 수업이었습니다.</p> <p>2) English219</p> <p>언어학 수업입니다. 전공이라 들었습니다. 전공이기 때문에 수업내용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일단 교수님과 textbook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많은 친구들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이번 학기가 언어학 가르치는 첫 학기여서 좀 엉성했어요. (참고로 교수님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오죽하면 교수님 설명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게 아니라 책 읽고난 후 내용 이해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쓸데없는걸 설명하느라 시간을 쓰세요. 이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textbook이 굉장히 마음에 안들었어요. 파트마다 연습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교수님이 매번 이걸 과제로 내셨어요. 연습문제는 어려운데 책에 답도 안나와있고 하물며 힌트같은것도 없어서</p>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textbook자체가 좀 뒤죽박죽이라 별로였어요.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학교에 ISSO라는 부서가 있는데 외국인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자기 비자나 서류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은데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 이럴경우 찾아가면 친절히 답변해줍니다. 또한 방학때 외국인학생들은 집에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ISSO에서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일정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만 저렴하고 다른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기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도 많이 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다른건 유의사항 별로 없고요 IOWA가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그나마 제가 갔을 때는 운이 좋아서 친구들이 이 정도는 정말 안추운거다(? 이랬는데 저는 정말 추웠어요. 오죽하면 겨울신발 정말 두껍고 튼튼한걸로 겨울에 새로 샀고요 겨울옷도 추가로 엄마께 택배로 받았어요. 정말 바람이 매섭고 추워요. 그러니 다른건 몰라도 겨울옷 따뜻한걸로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제가 있는 동안 IOWA에 총기사건도 일어났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위험한거 전혀 못느끼고 살았어요. 학교에 Police department도 따로 있고 safe ride도 밤늦게라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살았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기숙사 Frederiksen court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사는게 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기에 살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 기숙사 형태가 한집에 4명이 같이 사는건데 기호에 따라 방을 룸메이트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방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방 신청하고 싶었는데 제가 신청할때는 벌써 다 차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췌어했는데 결론은 룸메이트랑 너무 친해졌고 잘 맞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방을 췌어하는 집 형태는 방이 2개고 방 1개에 둘이</p>

	같이 사용합니다. 개인방 있는 집은 당연히 방이 4개있고요. 그밖에 다른 형태는 똑같습니다. 집은 살기 굉장히 편해요. 있을건 다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등 사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주방도 깨끗하고 나름 넓어요. 저는 요리 자주 해먹었습니다.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 타입에 따라 밀플랜이 필수인 곳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밀플랜 후기를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안샀는데 결론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밀플랜 산 친구들 보니까 학기 막바지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나눔하는 애들 많았어요. IOWA에는 한인마트는 3개 정도 있지만 한식당은 없어요. 그래서 한식 먹고 싶으면 만들어 먹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초반에 가서 음식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매끼 밖에서 사먹거나 학식 먹기는 좀 힘들더라구요. 그냥 밀플랜 사는 것 보다는 자기가 요리해 먹고 나가서 사먹고 학식먹고 이렇게 병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밀플랜도 비쌉니다. 학식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이죠.</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CYRIDE라고 캠퍼스 안에 통학버스인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꼭 캠퍼스안이 아니라도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쇼핑센터, 마트 등도 다 가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아이디만 탈 때 기사한테 보여주면 가까운 웬만한 곳은 공짜로 다 갈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60만원(편도)	왕복티켓을 한번에 구매하면 더 싸겠쥬. 근데 저는 돌아올 때 여행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도만 구매했습니다.
Fees	\$3,253.25(한 한기 보험료, 집세, 기타비용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메모 해놓은게 총 비용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 금액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책값, 생활비, 교통비 제외)
보험료	이 학교는 무조건 자기학교에서	

	권하는 보험을 사야해요.	
숙소	한달에 \$450-\$500 꼴로 낸 것 같아요.	
책값	\$388(한 학기)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바람이 굉장히 매섭고 겨울이 추운 곳입니다. 월동 준비 잘 해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자주 쓰는 물건 같은건 여분 챙겨가는데 좋겠죠? 여자분이면 스킨케어 제품 여분까지 챙겨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서 살 수는 있지만 한국제품이 가성비 정말 좋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 한국적인 제품 사가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밖에 조언드릴건 솔직히 없는 것 같네요. 저도 파견되는 곳에 대해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명 없었고 딱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불편함없이 너무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한국이랑 똑 같은 사람사는 곳이니 너무 걱정말고 일단 가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솔직히 교환학생으로 파견되기 전에는 희망적인 생각만 했어요. 가면 영어실력도 엄청 늘 것 같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다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하면서 많이 느낀건 영어는 가서 배우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우고 썼던걸 가서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가서 배우는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본도 알지 못하면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서는 실전입니다. 특히나 교환학생이라는건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게 아니라 영어로 학문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서 배워야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면 한국에서 인턴하고 자기 커리어 쌓는 친구들과 약간의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가서도 개인적인 커리어도 쌓으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고 친구사귀기 바쁘고 여행다니기 바쁘고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것 만으로도 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자기 커리어 쌓는 것보다는 도움이 덜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많이 즐겼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저는 시간낭비라는 생각 보다는 인생의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를 시험해보는 시간이었고 인생에 대해서 혼자 깊이 생각해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 두려움도 있겠지만 두려워 마시고 가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Iowa State University 캠퍼스도 예쁘고 사람들도 정말 좋아요.